

지역 문화 콘텐츠 우수성 입증

남원시 혼불문학관·고전소설 문학관, 전국 단위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 혼불문학관과 고전소설 문학관이 내란기 전국 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역 문화 콘텐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혼불문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이 주관하는 '2026년 지역문화 활성화 및 협력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번 성과는 올해 국립한국문학관으로 지정된 이후 거둔 첫 결실로, 전국 12개 선정 기관 중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혼불문학관은 대하소설 '혼불' 완간 30주년을 기념해 구술 기록과 음악을 결합한 공연 '혼불, 기억의 연주'를 준비 중이며, 공연은 오는 9월 문학축제 기간에 맞춰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전소설 문학관 역시 (사)한국문화관협회 주관 '2026년 지역문화관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50만 원(정액 국비)을 지원받아, 7~8월 중 초등학교 4~6학년용 대상으로 고전을 읽고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논술

활동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고전, 인문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혼불문학관은 대상별 맞춤형 단체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성인을 위한 언어 탐구 프로그램 '혼불, 나의 언어 정연'과 어린이를 위한 민속놀이 체험 '돌맹이 놀이' 등을 통해 소설 '혼불'의 문화적 가치를 다각도로 전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혼불 문학관(063-620-5746)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 13년 연속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가공식품 부문 대상

임실N치즈가 1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4일, 군은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임실군 대표브랜드 '임실N치즈'가 13년 연속 가공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은 동아닷컴과 MBC, 환경닷컴이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참여한 설문을 바탕으로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는 공신력있는 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임실N치즈'가 오랜기간 축적해온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소비자로부터 다시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대한민국 치즈산업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신뢰와 높은 만족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실군은 그동안 임실치즈농협과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신선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생산에 주력해 왔다.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임실군 대표브랜드 '임실N치즈'가 13년 연속 가공식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치즈제품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임실N치즈'를 대한민국 대표 치즈브랜드로 성장시켜 왔다.

유통 경쟁력 강화도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임실엔치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판로 확대와 브랜드 홍보를 지속 추진해, 지난해에는 지역 판매장 2개소를 추가 개장하고, 전국 단위 판매행사를 확대하며 연간 매출액 89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실치즈엔식 품연구소는 신제품 개발과 기술지원, 위생 점검을 통해 지역 유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임실군은 치즈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저지중 젖소 도입을 확대하고, 숙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등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 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7명 위촉

남원시의회의는 16일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위원 위촉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1명 만료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와 공정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 자문기구를 재정

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위촉된 위원들은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4월 18일부터 2028년 4월 17일까지 2년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

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 남원시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영태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활밀착형 보건사업 추진

남원시보건소, 안전지수 등급 향상 위해 협력체계 구축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지역 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와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의식지표 개선을 위한 보건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남원시는 오는 2027년까지 감염병과 자살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3등급 달성을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해 건강의식지표인 비누·손 세정제 사용률, 칫솔질 실천율, 걷기 실천율 향상 및 고위험 음주율 감소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보건소 내 약화지표로 나타난 '고위험 음주율' 개선을 위해 '달걀제로 행복가득' 사업에도 협력한다.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음주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발굴된 고위험음주자를 보건소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자원봉사센터와는 지역 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절주·금연 계도 활동과 퍼포먼스를 전개, 고위험음주 기준과 절주 수칙, 전자담배 관련 개정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고,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자발적인 건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

보건소는 남원시니어클럽, 남원거점스포츠클럽, 자원봉사센터 등 3개 기관과 협업을 시민들의 삶에 밀착된 건강증진 사업을 본격 추진, 시니어클럽은 시니어 걷기 리더를 양성해 평일(월·화·목·금)에 3개 조로 나뉘어 도통·향교·금·노암동 등 생활터에서 주민들에게 올바른 걷기법을 전파하며 상시 걷기 활동을 이끈다.

매주 수요일에는 걷기 명소를 순회하는 '수요일엔 남원 한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남원거점스포츠클럽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증

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체계로, 비누·손세정제 사용률 향상을 위하여 남원거점스포츠클럽 내에 '뷰박스'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손 씻기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체험형 교육을 진행해 개인위생 실천 의식을 높인다.

또한, 칫솔질 실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이동차량'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2026년 남원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내 약화지표로 나타난 '고위험 음주율' 개선을 위해 '달걀제로 행복가득' 사업에도 협력한다.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음주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발굴된 고위험음주자를 보건소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자원봉사센터와는 지역 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절주·금연 계도 활동과 퍼포먼스를 전개, 고위험음주 기준과 절주 수칙, 전자담배 관련 개정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고, 여러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자발적인 건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

남원시가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총층수 25·2번지와 26·3번지의 해당 주차장에 유료화 전환을 위한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 관제상황실 설치, 주차면 정비,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적 4,187㎡에 125면 규모로 재단장된다.

또한, 유료화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및 읍면동 홍보자료 배포, 무료 운영시간 사전 안내, 월 정기권 이용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유료화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정비는 4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유료화 시범운영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춘향제 이후인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로컬잡센터-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임실군로컬잡센터(이하 임실잡센터)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임실잡센터는 최근 성수산 인근 회의실에서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임실군 고용 활성화 및 복지-일자리 연결 실무 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MOU)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노인 및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순한 복지 수혜를 넘어 '복지에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희 임실군로컬잡센터장과 노준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지역 내 주요 16개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여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복지 대상자 발굴 △복지-고용 전문 연립망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고용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청소년의 균형 참여 확대를 위해 제18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순창군, 제18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가져

순창군이 청소년의 균형 참여 확대를 위해 제18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8기 순창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으로 선발된 청소년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최영일 군수가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당부하며 의미를 더했다.

순창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이 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참여기구다.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앞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연말까지 활발한 정책 참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명필화가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통부(廣通樞)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임으로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